그 좋은 일이 왜 이뤄지지 않을까

변정수 | 미디어평론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나온 책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라고 한다. 그런데 이 책이 35년 동안 팔린 부수는 고작해야 50만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여전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는 이른바 '교양 필독서'라는 걸 감안하면 내 어설픈 어림짐작으로 50만부의 20%가량은 되지 않을까 싶다.

귀동냥으로 얻어듣긴 했지만 몇 년 전 '슈퍼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어느 번역소설은 전세계 판매량의 4분의 1인가를 한국에서 팔았다고 한다. 유럽의 문화선진국에서 활동하는 그 작가는 경이적인 판매량에 감동했는지 이 후미진 변방의 나라까지 몸소 찾아와 주기까지 했다. 이쯤이면 우리나라를 언필칭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문화대국'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 작가는 겨우 며칠 동안의 한국 방문으로는 이 '문화대국'에서 '전업작가'라는 건 웬만한 인기작가가 아니면 꿈도 못 꾸는 일이고, 수많은 글쟁이들이 적빈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리라는 것까지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몇십만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쓰는 책마다 몇만부 정도는 팔려야 전업작가의 꿈이라도 꿀 수 있지만, 물 건너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다. 꼭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전업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 물론 그러다가 '대박'이 터지면 돈방석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본 부수는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50만부밖에 팔리지 않은 책을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할 수 있는 비밀은 공공도서관에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느냐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공공도서관에서 언제든 뽑아볼 수 있는 책이라면 그리고 어디나 가까이에 공공도서관이 있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 비싼 책(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책값이 싼 편에 속한다)을 굳이 구매해서 자기 서가에 꽂아둘 이유가 없다. 혹시나 취미삼아 '장서'를 낙으로 삼는 유한계급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우리나라에 공공도서관이 더도 말고 1만개쯤 생겼으면 좋겠다. 인구 4천명당 1개 꼴이다. 그러면 독자들은 몇십만부짜리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낼 주머닛돈으로 책을 사는 대신 세금을 내면 된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다. 마치 각종 공연 요금에 문예진흥기금이 붙어 있듯 도서관이 아닌 일반 시장에 유통되는 책에 도서관진흥기금 명목의 특별소비세를 붙여도 된다. 그리고 그 기금을 도서관에 나눠 주고 도서관은 그 돈으로 면세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하면 된다.

그 효과는 이렇다. 베스트셀러 작가는 가물에 콩 나듯 드물게 나오겠지만, 더 많은 작가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작품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는 그런 기반 위에서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도서관에서조차 선택되지 못할 만큼 질 낮은 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은 지금과 다름이 없으니 '엉터리 책'의 양산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출판사 입장에서도 자금 운용상에 이익이 있을망정 손해볼 일은 아니다. 이 좋은 일이 왜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까.

출판저널 격주간 · 값 2000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 한준호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 · 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 722-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